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2)

말뚝이 :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양반 3형제를 인도하여 등
장)

양반 3형제 :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3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짭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연죽전(煙竹塵)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紫紋竹)을 한 발 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각지 희자죽(喜子竹), 오동
 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사다가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
 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1. 윗 작품이 속한 갈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별도의 무대 장치가 필요없다.
- ② 악공과 관객들도 극에 개입할 수 있다.
- ③ 무대와 객석이 분리되어 있다.
- ④ 음악과 춤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된 민속극이다.

2. 윗 지문을 통해 추론하기 어려운 것은?

- ① 양반의 권위가 떨어졌다.
- ② 서민들은 양반 앞에서 담배를 금했다.
- ③ 말뚝이가 채찍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볼 때 과격한 인물임을 암시한다.
- ④ 양반들의 외모를 조롱하고 있다.

3.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 ① 밍다[뵤따] ② 뵤다[말따]
- ③ 읍다[읍따] ④ 늣지[늣찌]

4. 다음에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에 맞는 표기는?

- ① 쇠뿔에 받혔다. ② 옷을 달인다.
③ 마차가 화물차에 부딪쳤다. ④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5. 다음 중 논리적으로 잘못이 없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교육청도 시내버스 증차와 교통경찰차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 ② 아무리 글을 길게 쓰고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다보니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 ③ 의복은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 ④ 어린이들이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6. '국어 교육의 위기'란 제목으로 글을 쓸 때 다음 자료에서 일관성이 없는 것은?

- ① 정부의 어문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 ② 국어학자들이 제 구실을 못한다.
- ③ 국한 혼용과 한글쓰기 논쟁이 과열되고 있다.
- ④ 정부와 어문학자의 합작인 국어 교과서에도 문제가 많다.

7. 다음 중 한자가 바르게 쓰인 것은?

- ① 투표 결과 반대표가 많아 끝내 否決되고 말았다.
- ② 그 사람은 時事平論家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 ③ 그 사람은 지나치게 出世欲에 사로잡혀 있다.
- ④ 회의 진행중에 갑자기 同意案이 제출되었다.

8. 다음 <보기>의 대화에서 '을'의 "흡연은 건강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갑 : 여보게, 자네 담배 좀 그만 피우게. 자네 때문에 우린 고역일세.

을 : 그렇게 담배 연기가 싫은가? 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갑 :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의 사정도 좀 생각해 줘야지. 정 피우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피우면 되고……. 한 조사에 의하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 피우는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10배쯤 된다고 하니 자네도 끊는게 어때? 친구로서의 충고네.

을 : 그건 자네가 모르는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도 담배를 피우셨지만 여든까지 사셨다구.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도 아직 일흔의 나이에 정정하시구. 그러니 담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해.

- ① 정확성이 없는 근거 ② 공정성이 없는 근거
- ③ 창의성이 없는 근거 ④ 신뢰성이 없는 근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 10)

우리는 초등 학교, 중·고등 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어려서부터 소년, 청년 시대를 거의 학문을 하는 데 보내고 있다. 학자는 물론이려니와, 보통 사람들도 학교를 마쳤다고 해서 학문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일생을 두고, ㉠ 전문(專門)과 주력(注力)의 정도 차이는 있을 망정, 학문과 떠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것이 인생인 것도 같다. 학문이 없는 곳에는 인생의 고귀함도 없을 지 모를 일이다.

노자(老子)는 도덕경(道德經)에서 ㉡ "성(聖)을 절(絶)하고 지(智)를 버리면 민리(民利)가 백배(百倍) 하리라."고 하여, 지식이니 하는 것도 불필요함을 말하였다. 그러나 딱한 것은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아는 것도 하나의 '얕'이요, 후세 사람들이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 노자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것이니, 노자의 말은 오히려 지(智) 자체를 반성한 지의 지라고 하겠다.

9. ㉠의 의미로 옳은 것은?

- ① 대상과 노력 ② 학문과 힘 ③ 인생과 노력 ④ 지식과 힘

10. ㉡이 의미하는 것은?

- ① 이론적 가르침보다는 백성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② 인위적인 지식과 규범은 경계해야 한다.
 ③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 제도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
 ④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예절을 버리면 백성들에게 이익이 된다.

11. 다음 글의 구성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吾等(오등)은 茲(자)에 我(아) 朝鮮(조선)의 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의 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此(차)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에 告(고)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의 大義(대의)를 克明(극명)하며, 此(차)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에 誥(고)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의 正權(정권)을 永有(영유)케 하노라.

- ① 전제 - 결론 ② 주지 - 부연
 ③ 원인 - 결과 ④ 결과 - 근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2 13)

(가)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나) 책을 읽을 때에는 읽고자 하는 동기나 욕구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하는 독서는 효과도 적고, 오히려 낭비일 수도 있다. 양서(良書)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을 골라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읽는 목적에도 맞아야 한다.

12. (가)와 (나)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 (가) (나)

- ① 소유에 대한 깨달음 - 독서의 태도

- ② 부귀에 대한 비판 - 독서의 태도
- ③ 소유에 대한 깨달음 - 독서의 방법
- ④ 평등에 대한 깨달음 - 독서의 방법

13. (가)의 ㉠이 의미하는 것은?

- ①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더 심하다.
- ②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 갖는 마음의 변화도 그것과 똑같다.
- ③ 자기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사용한다.
- ④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갖는 마음은 변화가 없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 15)

㉠ 하 노피곰 도 샤 /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 도리 / 아으 다 디리
 저재 ㉢녀러신고요 / 어긔야 존 드 올세라. / 어긔야 어 도리
 어느 다 ㉣노코시라. / 어긔야 내 가논 / 점그 세라.
 어긔야 어 도리 / 아으 다 디리

14. 윗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달과 저재는 의미상 광명과 어둠의 대비적 개념이다.
- ② 후렴구를 제외하면 시조와 유사하다.
- ③ 백제 유일의 현전 가요이다.
- ④ 님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주제이다.

15. ㉠ ㉣의 해석이 틀린 것은?

- ① ㉠ 달님이시여 ② ㉡ 멀리 좀
- ③ ㉢ 가 계신가요 ④ ㉣ 누구이실까

16.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대조적 이미지를 띤 시어는?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① 청산(靑山) ② 가던 새
- ③ 잉무든 ④ 새

17. 말의 무용함을 말로써 표현(역설)한 것은?

- ① 교회당 꼭대기 /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 ②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그리스도처럼

- ②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④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 19)

더러는

㉠ 옥토(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흙도 티도

금가지 않은

㉡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 제.

㉢ 나의 가장 나아줄 지닌 것도 오직 이뿐

㉣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뭇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18. ㉠ ㉡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 ③ ㉢ ④ ㉣

19. 윗 시에서 '웃음'과 '눈물'의 의미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 ① 지속적인 것 - 단속적인 것
- ② 영원한 것 - 일시적인 것
- ③ 변하기 쉬운 것 - 변하지 않는 것
- ④ 내면적인 것 - 표면적인 것

다음의 수험생들의 기억에 의해 재생된 것입니다.

[정답] =====

1. ③ 2. ③ 3. ② 4. ① 5. ④ 6. ② 7. ①,③ 8. ② 9. ① 10. ②
11. ② 12. ③ 13. ① 14. ① 15. ④ 16. ① 17. ② 18. ④ 19. ③